

일반논문

미혼모에서 좋은 엄마로 위치하기: 양육미혼모의 낙인 대응에 대한 연구*

정지연** · 이미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혼모의 자기인식과 가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낙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본다. 자신을 비정상적 모성으로 인식하던 미혼모들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책임을 지려는 자신의 태도나 행동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이들은 차별과 배제 이외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여기며 낙인 기재인 정상가족 규범을 부인하고 자신의 가족을 다양한 가족으로, 자신을 좋은 양육자로 위치시킨다. 이는 소수자로서의 미혼모가 주체적으로 낙인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혼모의 자기 비난인화는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적 비난인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동시에 공고한 정상가족 규범으로 인해 미혼모 가족이 여전히 주변화된 가족으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주제어: 미혼모, 모성, 낙인이론, 비난인화, 정상가족 규범

* 이 논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지원방안(2018)’ 보고서를 위해 수집된 면접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하였음.

** 주저자,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시간강사(sweney@hanmail.net)

*** 교신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mjinglee@kwidimail.re.kr)

© 2020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문제제기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정상가족 규범에 기반하여 미혼모의 모성은 인정받지 못하며 그들의 가족은 결핍가족으로 여겨진다. 소위 ‘부도덕한 여성’ 혹은 ‘사회적 일탈자’로 낙인의 대상이 된 미혼모는 가족과 친구, 의료기관이나 관공서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타인들로부터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사회의 주변인으로 위치지어진다(김혜영, 2013; 김희주, 2015; 신필식, 2017).

물론 미혼모들이 차별과 배제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미혼모들은 당사자 모임을 조직하여 차별감소 운동을 벌이거나 미혼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한다(손승영, 2017). 또한 자녀 출산 후 입양보다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혼모 자신을 적극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주제로 여기기도 한다(박동진 외, 2017; 이미정, 2011; 이윤정·강성례, 2017).

이러한 현상은 미혼모들이 소수자로서 자신과 가족을 인식하는 관점이 통일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단초를 제공한다. 미혼모가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는 미혼모를 정상가족의 일탈자로 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이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혼모가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는 단순한 위기 경험이 아니라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에 대한 압력이라 할 수 있다. 사회에 속한 모든 개인은 개별화된 분절적 존재가 아니라 그 사회 가치관의 수용자, 적응자로서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구성한다. 따라서 미혼모로서의 경험은 사회의 가치관에 비추어 자신을 해석하는 작업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소수자의 자신에 대한 인식변화와 낙인에 대한 다양한 대응으로 나타난다(고프만, 2009; Lamont, 2018).

하지만 미혼모의 차별경험에 대한 논의들은 미혼모의 위기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미혼모를 취약집단 혹은 정책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미혼

모의 긍정적 경험에 대한 논의들 역시 대부분은 개별 미혼모의 경험에 초점을 맞출 뿐 여전히 소수자로 살아가는 미혼모의 자기 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이는 미혼모들이 사회 내 다양한 규범의 압력 하에 있는 존재로서 이 규범들에 비추어 미혼모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비가시화한다. 미혼모라는 낙인은 개인의 본질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건이라기보다 정상가족 규범을 기준으로 한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상인 혹은 낙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관점일 뿐이다.¹⁾ 따라서 미혼모의 인식과 그 변화는 이들이 낙인자의 역할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낙인이론과 비낙인화 개념을 활용하여 미혼모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혼모들과의 면접자료를 통해 차별과 배제를 포함한 다양한 경험과정에서 미혼모들이 정상가족 규범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해석이 자기와 주변에 대한 인식과 어떤 지점에서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상가족 규범은 미혼모를 낙인화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미혼모들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식, 태도,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식, 즉 낙인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미혼모를 취약집단이나 정책대상자로 바라보는 입장을 넘어 한 사회의 가치관의 담지자로서 소수자의 가치관 인식이 자신의 정체성 구성과 표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 논문에서는 '정상(인)' 혹은 '비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옳은 사람, 혹은 옳지 않은 사람의 의미로 쓰지 않는다. 고프만은 정상(인)이나 낙인자(비정상인)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를 보여주는 사회적 관점이라고 설명한다(고프만, 2009). 즉, 정상(인)은 낙인자인 미혼모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일탈이 적거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역할을 한다. 이와 달리 미혼모는 정상가족 규범을 기준으로 일탈자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낙인이론과 비낙인화

(1) 낙인이론

낙인(stigma)은 사회에서 수용되는 ‘정상성(normality)’에 위배되는 부정적 속성이다(고프만, 2009; 송관재 외, 2001; Link and Phelan, 2001; May, 2000; Thornberg, 2015). ‘정상성’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가치, 문화, 행동양식 등을 의미한다(고프만, 2009). 정상성에 어긋난 부정적 속성이 하나의 범주로 가시화되어 이를 지닌 개인은 ‘정상적인 우리(normal us)’와 다른 ‘그들(not like us)’로 구별된다(Thornberg, 2015). 부정적 속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들은 이주민, 죄수, HIV보유자, 장애인, 성소수자, 따돌림 받는 학생 등 다양하게 호명된다(고프만, 2009; 안순태·이하나, 2017; Thornberg, 2015; Toyoki and Brown, 2014). 즉, 낙인집단의 명칭은 이들의 일탈적 속성을 명시한다.

낙인은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stereotypes)으로 연결된다(고프만, 2009; Link and Phelan, 2001).²⁾ 낙인의 편견 때문에 낙인집단 내 개인의 차이는 비가시화된다. 예컨대, HIV 보유자들은 개인의 성별 혹은 성적지향과 상관없이 문란한 남성 동성애자라고 일컬어진다. 비만인 사람들은 그들의 개별성이 어떠하든지 음식을 통제하지 못하고 게으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관리를 못하는 사람들로 여겨진다(Clair et al., 2016). 또한 시각장애 여성들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출산과 상관없이 육아가 불가능하

2) 낙인은 단순히 정상성에 어긋나는 일탈적 속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일탈적 속성은 낙인대상자의 부정적인 면, 예컨대, 태만이나 비도덕성 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며 이는 다시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진다(고프만, 2009). 이 연구에서 낙인의 의미는 낙인집단의 일탈적 속성과 낙인집단에 부여되는 편견을 포함한다.

로 엄마가 될 수 없다고 여겨진다(Frederick, 2015). 낙인집단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행동, 태도, 능력, 낙인집단에 속하게 된 원인 등은 개인적 속성이다. 하지만 낙인은 개인적 속성을 집단적 속성으로 치환하여 낙인집단 내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문제를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프만, 2009).

이와 더불어 낙인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십대 미혼모들이나 미국의 흑인 미혼모들은 복지수혜자이며, 이들의 수가 증가하면 국가의 복지재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여겨진다(Hyde, 2000; Jarret, 1996). 이들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훈련이나 돌봄 자원의 부족으로 자녀돌봄과 직장생활을 함께 하기가 어려워 복지수급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과 같은 낙인집단은 차별 때문에 제한된 삶의 기회만 허용되며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제약으로 이어진다(고프만, 2009). 그럼에도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야기하는 사회적 요인은 비가시화되고, 대신 이들 개인의 무능력이나 무책임이 강조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복지수혜자라는 편견이 강화된다.

그렇다면 낙인집단은 자신에게 부여된 낙인과 편견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가? 이들이 낙인에 대응하는 전략은 다양하다(고프만, 2009; 김순남, 2017; 신유리 외, 2012; 안순태·이하나, 2017; May, 2000; Toyoki and Brown, 2014). 낙인 대응은 낙인집단의 특성에 따라, 개인에 따라, 그리고 낙인집단의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타인에 따라 달라진다(May, 2000; Toyoki and Brown, 2014).

낙인집단이 낙인에 대응하는 첫 번째 전략은 수용(acceptance)이다(고프만, 2009; Toyoki and Brown, 2014). 낙인집단은 자신을 '정상성' 규범의 이탈자라고 여긴다. 이들은 자신의 낙인을 수용함으로써 낙인과 관련된 편견들을 자신의 정체성 혹은 아비투스로서 받아들인다(박홍근·허준기, 2016; Link and Phelan, 2001). 예컨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은 자

신들이 다른 학생들과 외모, 옷차림, 성격 등이 달라 정상적인 학생이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하고 다른 학생들의 따돌림을 정당하다고 여긴다(고프만, 2009; Thornberg, 2015). 낙인집단은 낙인과 관련된 편견을 자신의 언행을 검열하는 기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국가로부터 수급을 받는 장애인들은 '수급자다움'이라는 정체성을 수용하여 자신이 수급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비싼 소비를 하고 있는지 검열한다(박흥근·허준기, 2016).

낙인에 대응하는 두 번째 전략은 회피이다. 이들은 낙인을 인정하지만, 자신은 낙인의 편견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긍정적인 다른 면을 부각하여 낙인으로부터의 역할 거리 두기(role distance)를 시도한다(고프만, 2009; Hyde, 2000; Link and Phelan, 2001). 예를 들어, 핀란드의 죄수들은 죄수라는 낙인을 수용하지만 교도소에서 동료관계가 좋음을 강조하거나 죄수가 되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죄수의 낙인과 관련된 편견을 약화시키고자 한다(Toyki and Brown, 2014). 또 다른 예는 아일랜드의 20대 중반 이상의 미혼모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노동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가에 의존적인 미혼모라는 편견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낙인을 회피한다(Hyde, 2000).

한편 낙인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종종 자신의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낙인을 회피하고자 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공간관리(space management),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는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가 그것이다(고프만, 2009; May, 2000; Toyoki and Brown, 2014).³⁾ 이러한 사례로 살인자의 친척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거나 살인자인 친척에 대한 정보를 생략하여 자신을 다른

3) 고프만(2009)은 이러한 낙인회피 전략을 패싱(passing)이라고 명명하였다. 패싱은 낙인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낙인과 관련된 결합 속성을 다른 속성적 기호로 제시하는 것이다(고프만, 2009). 패싱의 주요 목적은 낙인으로 인한 비난을 감소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낙인회피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보통사람들(normals)’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한다(May, 2000).

이와 같이 고프만으로부터 시작되는 낙인이론은 낙인집단이 정상인-비낙인집단과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치짓는 방식을 드러내고 낙인으로 인한 비난과 편견을 최소화하는 기술과 전략을 묘사하였다.

(2) 비낙인화(destigmatization)

낙인이라는 사회적 현상, 즉, 정상인과 낙인자를 구별짓는 기술이 사회적인 것이기는 하나 낙인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낙인의 기제가 변하기 때문인데, 낙인기제의 변화로 낙인이 약화되는 것을 비낙인화(destigmatization)라고 한다(고프만, 2009; Clair et al., 2016; Jarret, 1996; Lamont, 2018). 비낙인화는 주류집단과 낙인집단의 집단 간 인정 격차(recognition gap)를 감소시켜, 지위가 낮은 집단(low-status groups)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동등한 수준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수용됨을 의미한다(Lamont, 2018). HIV 보유자, 비만인, 흑인들은 낙인이 약화되어 온 대표적인 집단이다(Clair et al., 2016).⁴⁾ 비낙인화는 낙인집단을 옹호하는 전문가집단, 언론인, 변호사, 정치인, 행정가, 기업, 비정부기구 활동가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들의 활동이 응집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Clair et al., 2016; Lamont, 2018).

거시적 측면에서 비낙인화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의 운동으로 인한 사회변화이지만, 미시적 측면에서 낙인집단의 인식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기-비낙인화(self-deigmatization)라고도 일컬어지는 이러한 과정은 낙인집단이 자신들을 향한 낙인을 해체하고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4) 비낙인화는 낙인집단의 낙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낙인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며 따라서 낙인집단에 대한 차별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Clair et al., 2016). 이러한 점에서 비낙인화는 낙인이 완전히 사라진, 완결된 의미라기보다는 낙인집단이 아닌 정상인들과의 구별이 약해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식을 강화하는 과정이다(Richard-Lepouriel et al., 2020). 즉, 낙인집단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낙인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편견을 제거하는 동시에 낙인집단 역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정상인과의 동등성을 강조한다(Clair et al., 2016; Lamont et al., 2016; Lamont, 2018; Toyoki and Brown, 2014).

2) 미혼모의 차별과 배제에 대한 선행연구

미혼모들은 임신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된다(박동진 외, 2017; 이미정 외, 2018). 미혼모들이 임신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들의 임신과 출산 과정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미혼모는 정상가족이라는 사회의 주요 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는 집단으로 여겨진다(고프만, 2009). 예컨대, 미혼모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성이거나 대부분 철없는 십대라는 편견이 그것이다(신필식, 2017). 이들은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을 한,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들'일 뿐이며 책임감 없이 임신과 출산을 감행한 이들로 인식된다(성정현·김희주, 2016). 따라서 이들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진다.

미혼모를 대상으로 차별과 배제를 행하는 존재는 미혼모의 파트너와 원가족, 지인,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직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임혜영·이혁구, 2014). 임신을 알게 된 이후 파트너는 임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며 미혼모를 비난하기도 한다(김희주 외, 2012; 이현주, 2011). 임신기간 동안 미혼모들은 원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조언 대신 입양과 낙태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다(김희주 외, 2012). 이러한 비난은 출산 이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이어진다.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에게 가족이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미혼모들은 원가족 내 문제가 발생할 때 미혼

출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이현주, 2011).

미혼모는 직장생활이나 관공서 등 공적영역에서도 차별을 경험한다. 미혼모들은 임신사실을 알게 된 회사 측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미혼임신을 밝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편견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퇴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김희주 외, 2012; 이윤정·강성례, 2017; 이현주·엄명용, 2013). 관공서에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복지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미혼모임을 공공연히 밝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성정현 외, 2015).

이러한 차별과 배제를 통해 미혼모를 비도덕적 여성, 모성 자격이 없는 여성으로 위치시키고 미혼모의 자녀를 입양 보내도록 권유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정상가족 규범이 강력하게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해 왔음에도 정상가족의 부모만이 출산과 양육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정상가족 규범은 여전히 강력하다(권희정, 2014; 권희정, 2015; 김혜영, 2013).

하지만 정상가족 규범의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들이 증가하고 있다(성정현·김희주, 2016; 이미정, 2011; 이정인·이인수, 2016; 임해영·이혁구, 2014). 이 과정에서 미혼모들은 스스로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동시에 주체적인 모성을 표현한다(이윤정·강성례, 2017; 이은주·최규련, 2014; 임해영·이혁구, 2014). 이러한 연구들은 미혼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모성경험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개별 미혼모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정상가족 규범에 의해 여전히 비정상적인 모성, 결핍가족으로 여겨지는 소수자로서 미혼모의 인식과 인식이 변화되는 지점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미혼모들은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받는 존재로서 정상가족 규범이 미혼모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 작용하는 지점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자료 및 방법

1) 연구자료

이 논문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지원방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시한 미혼모 대상 면접자료이다. 면접자들은 미혼으로 출산을 준비 중이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이었다. 면접자들은 여러 군데의 미혼모 당사자 조직을 통해 소개 받았다. 면접은 미혼모들의 거주지, 가능한 면접시간 등을 고려하여 초점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혹은 개인면접으로 진행하였다. 면접 기간은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이다. 면접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 면접을 하였다.

보고서를 위한 면접내용은 양육미혼모로서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미혼모들이 경험한 어려움이다. 보고서에는 임신초기부터 양육초기까지 미혼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면접의 주된 질문은 미혼모들이 임신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자녀양육 초기까지 경험한 어려움과 각 시기별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면접자들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통한 낙인 경험을 설명하고 이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낙인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말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보고서의 목적과 적합하지 않아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미혼모의 낙인에 대한 인식과 이들의 대응,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소수자로서의 경험과 주관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고서와 달리 미혼모 당사자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차별 경험을 통해서 소수자인 자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드러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7명의 면접자 중 자신을 향한 낙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지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한 17명의 면접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한 면접자료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심층면접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례	연령	거주지역	자녀연령	거주 형태	면접방법
1	41세	서울	12개월(남아)	재가	FGI
2	42세	서울	4세(여아)	재가	FGI
3	31세	서울	8세(여아)	재가	FGI
4	29세	서울	2세(남아)	친구 집 거주	개인면접
5	32세	서울	3자녀(10세,8세,5세)	재가	FGI
6	35세	서울	6세(남아)	재가	FGI
7	21세	서울	5세(남아)	시설 거주	FGI
8	35세	서울	7세(남아)	재가	FGI
9	32세	서울	2세(남아)	시설 거주	개인면접
10	38세	서울	4세(쌍둥이 여아)	부모와 거주	FGI
11	37세	서울	3세(여아)	재가	FGI
12	32세	부산	5세(남아)	재가	FGI
13	45세	부산	5세(남아)	재가	FGI
14	32세	대구	3세(여아)	재가	FGI
15	32세	대구	5세(남아), 7세(여아)	재가	FGI
16	34세	대구	2세(여아)	재가	FGI
17	33세	대구	2개월(여아)	재가	FGI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성주의를 기

반으로 하는 근거이론은 주로 질적자료를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주요개념을 이론화 혹은 구조화한다(글레이저, 스트로스, 2011). 근거이론은 자료들로부터 주요 개념들을 포착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전체 구조에 대한 시각적 그림을 제시하기도 한다.

자료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 녹취 전사된 면접기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개방코딩을 하였다. 코딩이란 문장이나 단락, 이야기 등 각 단위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다(차마즈, 2013). 개방코딩은 글레이저(Glaser)가 제시한 절차에 근거하여 문장과 단락 단위로 시작하였다(글레이저, 2014). 개방코딩을 통해 '미혼모의 자기인식'을 핵심내용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속성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미혼모의 자기인식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개념들을 찾아내었다. 이 단계에서는 1차 코딩한 자료들과 면접녹취록을 다시 읽고 사건과 사건, 혹은 개념과 사건을 비교하며 유사한 의미를 지닌 개념들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주제어를 생성한 후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제어와 범주들은 낙인이론과 비낙인화 개념을 활용하여 추상화하였다. 미혼모는 정상가족의 일탈자라는 낙인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대응을 한다. 낙인에 대한 대응은 여러 차원으로 분류하여 각각 수용, 회피, 저항 등 낙인이론의 하위개념으로 추상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혼모들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는데 이를 비낙인화 개념을 활용하여 추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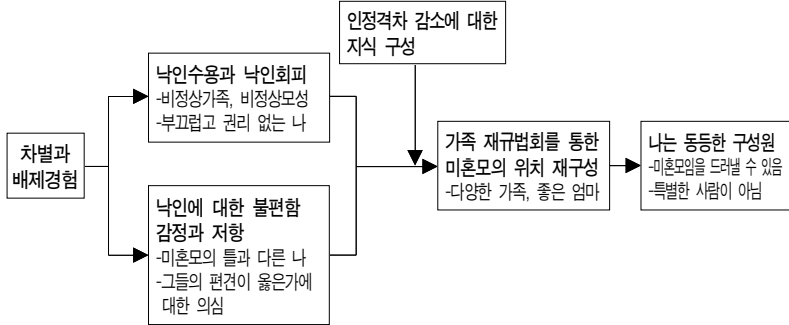
범주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범주, 주제어, 내용과 면접자료들을 다시 비교분석하여 주제어와 범주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낙인과 사회의 정상규범에 대한 소수자의 인식은 자기를 바라보는 방식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낙인이론/비낙인화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를 정리하여 범주화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2〉 미혼모의 낙인과 자기인식의 개념 범주화

범주	주제어	내용
낙인 수용과 낙인회피	비정상가족과 비정상모성으로 인식함	· 결혼과 연결되지 않은 임신 출산은 비정상이라 인식 · 아이 아빠가 없을 거라는 편견을 경험 · 나의 모성을 비정상이라 여김 · 임신기간 중 모성의 발전은 사치
	미혼모됨의 부끄러움과 권리 없는 존재인 나	· 미혼임신은 평범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 · 남편은 당연히 있는 존재인데 나만 없어서 민망 · 미혼모인 것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음 · (경제적)도움을 받는 것은 떳떳하지 못함
낙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저항	미혼모의 편견과 다른 나	·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출산 · 출산과 양육은 나의 결정 · 출산 이전에 자녀 양육에 대한 계획을 함
	비미혼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 미혼모의 입장이 아닌 사람은 인지하지 못함 · 미혼모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한 배려부족 · 상대의 행동이 차별인지 우연한 반응인지 갈등
인식전환의 계기	인정격차 감소에 대한 지식 구성	· 미혼모 활동은 나를 새롭게 보는 계기 · 일상생활이 가능한 일본 미혼모들과 교류 · 나의 사생활에 신경 쓰지 않는 외국인 친구들과 · 행복한 모습의 미혼모들과 교류 · 교회, 친구 등과의 긍정적 관계 경험
가족 재규범화를 통한 미혼모의 위치 재구성	나의 가족은 다양한 가족	·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존재 · 가족 구성원은 가족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자녀에게도 다양한 가족의 의미 설명 · 자녀의 학교나 어린이집에 다양한 가족 설명 요구
	나는 자녀를 열심히 키우는 좋은 엄마	· 나의 자녀는 밝은 성격임 · 자녀를 잘 양육할 자신이 있음
나는 다르지 않은 사람	미혼모임을 드러냄	· 미혼모임을 드러낼 수 있음 · 자녀의 학교 선생님께 미혼모임을 밝힘 · 미혼모임을 밝혀야 상대방의 실수를 막을 수 있음
	평범하게 대우받고 싶음	· 미혼모라서 가난하게 보이고 싶지 않음 · 미혼모의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이 싫음 · 미혼모의 자녀라고 특별한 배려를 원하지 않음

위의 분석을 통하여 추상화된 결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후 구조화하여 모형화하였다. 모형으로 제시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분석틀: 미혼모의 낙인인식의 변화에 따른 자기인식과 낙인대응



4. 분석결과

1) 차별과 배제, 사회적 편견을 통한 미혼모 되기

면접에 참여한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기 이전까지 상대남성과 평범한 연애관계에 있는 여성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임신 이전까지 '미혼모'라는 용어가 생소했지만,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통해 자신이 '미혼모'임을 실감하였다(사례1).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임신을 알린 이후 가족, 친구들의 반대와 비난을 경험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녀를 양육하기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친구, 시설, 의료진으로부터 입양을 권유받았다. 직장에서는 임신이 밝혀져 혹은 스스로 임신을 감추고 싶어 퇴직을 하기도 하였다. 출산 이후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업무를 볼 때, 담당자들이 가족관계란에 미혼모의 남편 혹은 아이아버지가 없

는 이유를 묻기도 하였다. 담당자들에게 미혼모임을 밝혔을 때, 미혼모들은 자신을 무책임한 사람으로 여기는 듯한 상대의 태도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미혼모는 생애과정 중간에 낙인의 대상이 된 사람들로 이들은 이미 정상가족 규범을 수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프만, 2009; 김혜영, 2013; May, 2000). 때문에 미혼모들은 정상가족 규범을 기준으로 자신을 일탈자로 여기기 쉬웠을 것이다(권희정, 2015). 이에 더하여 차별과 배제 경험은 미혼모로 하여금 미혼출산을 일탈적 사건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게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뉘어져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든지 아니면 애를 먼저 낳고 뒤늦게 결혼을 하든지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사례16).

제가 만약 미혼모가 아니고 결혼해서 남편이 외국 가 있든지 어쨌든지 간에 정상적인 상태였으면...(사례13).

사례16과 사례13처럼, 다른 미혼모들 역시 결혼과 관련 없는 임신, 출산은 '비정상'이라고 하였다. 반면 '남편이 외국에 나가있거나'하는 이유로 부재중이더라도 결혼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다면 '정상적'이라고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만큼은 결혼여부가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이수연 외, 2017). 미혼모들은 이러한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의 임신과 출산을 일탈적 사건이라고 여긴다.

결혼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출산의 구분은 미혼모 가족구성원을 인식하는 틀에도 작용한다. 미혼모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가족형성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미혼모의 가족은 '결핍 가족'으로, 미혼모의 자녀는 '출처

없는 아이'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이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는 남성의 부재로 인한 것인데 아버지의 부재는 미혼모의 모성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된다(권희정, 2015).

(아이를 임신해도) 그냥 싱글인 거잖아요. 아무리 뱃속에 애기가 있어도... 물론 모성이란 것도 있지만 정상적인 모성이란 건 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결혼이란 걸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있고 안정된 가정에서 정말 축복받으면서... (사례11).

사례11은 결혼제도를 통하지 않고 임신과 출산을 한 자신의 모성을 결혼을 통하여 출산한 여성들의 모성과 다르다고 하였다. 미혼모들은 엄마가 되는 자격을 지니지 못한 존재로서 이들의 자녀양육 능력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Frederick, 2015). 이러한 인식은 미혼모들의 모성경험에 대한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정서적·신체적 위기는 이들의 신체적 건강, 경제적 상황, 사회적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는 결혼 후 임신과 출산을 거치는 기혼여성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유독 미혼모들은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위기를 결혼이 부재한 출산과 연결지어 이야기한다(사례17). 즉, 자신이 엄마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잘 해주지 못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미혼모들이 모성자격이 없다는 사회적 편견을 수용하며, 이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신, 출산의 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부끄러운 나, 권리 없는 나

낙인대상자는 낙인을 수용함으로써 일탈자로서의 자아 정체성의 변화를 감지하며, 새롭게 구성된 정체성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변

한다(고프만, 2009).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미혼모들은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러한 감정은 우선 자신이 낙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서 비롯되며,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음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고프만, 2009).

미혼모들은 남편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민망했다거나, 남편 없는 자신을 '애처롭다'고 여기는 듯한 관공서 직원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꼈다(사례16). 이러한 경험과 감정이 지속되면서 미혼모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낙인을 회피한다.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문의하기 위해 보건소에 찾아가는 것이 꺼려져서 전화로 물어보거나, 가족에게 자녀 출산 혹은 양육사실을 비밀로 하는 등의 행동이 그것이다.

한편 미혼모들의 낙인 수용은 자신의 언행에 대한 검열로 이어진다. 예컨대, 자신을 비정상적 모성으로 바라보는 미혼모의 인식은 자신을 검열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미혼모들은 자신이 자녀를 양육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끊임없이 되묻는다. 이는 입양이나 낙태에 대한 갈등 없이 자녀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도 마찬가지이다.

저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제가 낳아서 기르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힘들 때는 '내가 애를 진짜 보내야 되는데, 내가 잘못 데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되게 많이 생각해요(사례12).

면접에 참여한 미혼모들은 대부분 원가족과의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취약성, 돌봄지원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힘들 때마다 자녀를 '잘못 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시설에 가거나 입양이 되면 애한테 물질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사례12의 설명은 미혼모로서의 자녀양육의 고민에 대한 관점이 기혼여성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대

부분의 엄마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혼모는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어떻게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보다 자신이 자녀를 키울 것인가 혹은 입양 보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즉, 미혼모들이 정상가족 규범의 이탈자가 되었다는 관점을 내면화함으로써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자녀양육을 지속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자기검열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자기검열적 모습은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하는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미혼모들은 미혼임신과 출산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저의) 자격지심인거죠. (미혼임신이)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상황이고, 나는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미혼모 될 줄 몰랐잖아요. 내가 미혼모가 아닐 때 나도 미혼모를 그렇게 바라봤었는데 미혼모가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격지심이죠(사례11).

사례11은 주민센터에서 출산 관련 지원에 대해 문의 하던 중 자신이 '미혼모'임을 밝힌 것은 '자격지심'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사례11이 미혼임신을 '사회통념에서 벗어난' 부끄러운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 때문에 복지서비스 등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시설에서의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저를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게, 제가 싫어서. 아직 제가 떳떳하지 못한데... (미혼모 가정으로서) 평범한 가정도 아니고, 잘한 행동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더 오히려 안 기대려 해요 (사례9).

그건 욕심이죠. 시설에서 산후조리까지 바라면 욕심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시설에서) 개개인마다 산후조리를 시켜준다고 조리원에 보내요(사례10).

미혼모들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원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출산을 한 여성의 건강권 차원에서 시설에 산후조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처럼 미혼모들은 자신이 일탈적 위치에 있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산후조리처럼 시설 지원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는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일탈자로서 자아 정체성을 구성함으로써 미혼모의 타인과 사회에 대한 기대는 미혼모가 되기 이전과는 다름을 보여준다.

3) 낙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저항

미혼모들은 비난과 차별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향한 낙인을 수용하기도 하지만, 낙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며 낙인에 저항하기도 한다. 이는 미혼모가 낙인집단으로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미혼모들은 자녀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후 엄마가 된다는 기대를 가지며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자 한다.

하지만 다시 미혼으로 임신하지 말라는 의료진의 충고,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언, 관공서에서의 불친절한 대응 경험, 자녀출산계획을 밝힌 후 지인들과 친구들의 철이 없다는 반응 등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혼모들은 자신을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존재로 보는 타인의 시선을 알게 된다. 즉, 차별과 배제 경험은 미혼모들에게 자신의 기대와 사회의 인식이 다름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고프만, 2009).

책임도 제가 지는 건데, '왜 저런 방식으로 얘기를 꼭 하셨어야 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사례2).

저도 모르는 사람(의사)이 어떻게 낱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지... (사례14).

미혼모들은 자신을 향한 낙인의 시선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들은 출산과 양육을 스스로 선택했으며 자신들이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미혼모들은 타인들의 조언이 과도한 간섭이라고 여긴다.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조언이 어느새 도움이 되지 않는 '충고가 되어 있었다'는 한 미혼모의 표현은 미혼모를 판단하는 타인과 미혼모인 자신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사례14).

이 과정에서 미혼모들은 상대가 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차별적 발언을 하는지 고민한다. 차별과 배제는 보통 정상인과 정상규범의 일탈자들인 미혼모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행해지는데, 이는 정상인과 미혼모 간 사회적 위치의 차이를 가시화하는 장치로 작용한다(Lamont, 2018). 미혼모들은 양자 간 위치의 차이를 간파하고 이를 입장의 차이로 해석한다.

미혼모 입장이랑 그 사람들 입장이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질문이 저희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생각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사례4).

미혼모들은 타인들이 미혼모로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혼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고 여긴다. 혹은 미혼모 자신이 타인의 언행을 오해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4는 의료시설의 직원이 자신에게 짜증을 냈던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이 미혼모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직원에게 사정이 있어 그 순간 친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미혼모는 미혼모가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의 간극을 이해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미혼모를 향한 사회적 낙인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지점을 발견한다. 따라서 차별과 배제 경험은 미혼모로 하여금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동시에 이 낙인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를 돌아보는 계기로 작동한다(Lamont, 2018).

4) 인정격차 감소에 대한 지식 구성

미혼모들이 그들의 삶에서 차별과 배제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차별과 배제 이외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차별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미혼모들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는 이러한 경험들은 소수자로서 미혼모와 타인들 간 인정격차 감소를 위한 지식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미혼모들의 경험은 동질적이지 않다. 예컨대, 사례2는 미혼모 당사자 조직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내가 미혼모라서 힘들었다는 것을 정말 인지를 못하고 살았는데, 이걸 (당사자 조직) 하면서 대표님하고 출장도 다니고, 컨퍼런스도 하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사례2)

사례2는 당사자 조직에서의 활동을 통해 미혼모들이기 때문에 열악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미혼모들과의 연대를 통해 미혼모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지식을 구성한다. 타인들과의 긍정적 교제 경험 역시 미혼모의 인식변화에 도움이 된다. 사례3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미혼모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미혼모다움'이라는

들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존재임을 알았다고 하였다. 사례11과 사례12는 교회에서 자신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는 타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일상적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자녀도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접촉 역시 미혼모의 모성은 잘못되었다는 한국 사회의 인식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사례14는 외국인 친구들이 자신의 가족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미혼 임신은 사생활에 속하며 미혼모 가족은 그저 여러 가족유형의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을 지니게 되었다. 한편, 다른 나라 미혼모와의 교류 역시 미혼모에 대한 새로운 지식구성의 계기로 작동하였다. 사례16은 자신이 거주하던 시설 종사자들의 권유로 일본 미혼모 시설 종사자들과의 교류 행사에 참여하여 일본의 미혼모들을 만난 경험이 있었다.

(일본에서) 미혼모 엄마들도 봤는데, 어린 10대 엄마들이었어요. 그 엄마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대요. '나 임신했는데, 어떻게 하나?'(하고 일본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나서서 도와주고 시설 알아봐 줬대요.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고(사례16).

사례16은 일본 미혼모들과의 교류 이후 미혼으로 임신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미혼모들의 자녀양육을 도와주지 않는 사회가 문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미혼모들은 여러 경험을 통해 미혼모를 향한 부정적 기대에 걸맞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고프만, 2009). 이들의 경험은 미혼모들의 미혼 출산과 자녀 양육이 비난받지 않는 사회가 가능하며 학업이나 직업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등 보통 개인, 보통 가족으로 살아

갈 수 있다는 지식 형성의 계기가 된다. 더 나아가 미혼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 즉, 미혼모와 그의 가족이라고 해서 양부모 가족에 비해 주변화된 위치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5) 가족 규범 재개념화를 통한 미혼모의 위치 재구성

미혼모들은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통해 일탈자로서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기도 하지만, 여러 경험을 통해 미혼모의 틀에 따라 살지 않아도 됨을 깨닫는다. 이 과정에서 미혼모들은 자신의 모성을 비정상적으로 위치짓는 정상가족 규범의 전환을 꾀한다. 미혼모들이 정상가족 규범에 의해 일탈자로 위치지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가족이 소위 정상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 낙인집단으로서 미혼모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자신들을 정상가족과 최대한 동등한 위치에 존재시키는 것이다. 미혼모들은 결혼과 연결되지 않은 출산과 양육이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하며, 가족 규범을 재개념화하고 자신들을 미혼모에서 좋은 양육자로 재위치시킨다.

면접에 참여한 미혼모들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미혼모로서의 자녀 출산이 결혼과 마찬가지로 가족구성 시작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미혼모의 출산과 결혼을 통한 가족구성이 동등하다는 인식은 정상가족이 유일한 가족규범이 아닌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귀결된다.

서류상으로도 엄마, 아빠, 조모, 조부, 기타 이런 식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가정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식의 가족만이 (정상) 가정인 것 마냥 내세워서 서류를 내야 하는 거냐는 거죠... 미혼모 가정이니 일반 가정이니 나누지 말고 그냥 각기 다른 가정임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사례2).

(한부모 가족이) 아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지 않을 뿐이다. 우리 가족은 엄마와 나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가족은 조부모와 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다 가족들이 다른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하는데(사례11).

미혼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도 다양한 가족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가 다니는 학교 혹은 어린이집에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사례7, 사례10). 이는 자녀들이 미혼모 자녀라는 낙인을 수용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한편 미혼모들은 ‘행복’한 가정이나 좋은 부성, 좋은 모성이 정상가족에 게만 허용된 특성이 아님을 강조한다.

행복한 가정이 정상이고,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이상한 가족인 거예요(사례8).

가정의 정상, 비정상을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빠가 있어도 옳지 않은 아빠가 너무 많잖아요(사례16).

사례8은 ‘정상’ 가족의 기준을 구성원의 형태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감정으로 치환한다. 1960년대 정부 주도의 핵가족화 전략에 맞추어 언론들은 ‘행복한 가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에게만 해당된다는 담론을 확대하였다(권희정, 2015). 하지만 미혼모들은 행복은 정상가족만 누릴 수 있는 정서라는 사회적 통념을 뒤집고 반대로 ‘행복한’ 가족은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지 가능하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정상가족의 부모만이 좋은 부성 혹은 모성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을 거부한다. 사례16은 정상가족 아버지의 존재가 긍정적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

하는데, 이를 통해 나쁜 아버지의 존재가 아버지의 부재보다 더 나은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논리는 미혼모들의 모성을 재구성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결혼으로 이루어진 부부만 자녀를 키울 자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혼모들이 다양한 가족을 강조하여 자신의 모성이 비정상적이라는 논리를 무력화하는 한편, 자녀 돌봄에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좋은 양육자로 위치시킨다.

임신, 출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엄마가 혼자 양육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애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건강하게 키운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례6).

사례6은 출산 이후 자녀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자녀를 책임지는 존재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미혼모들이 자신을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감 있는 존재로 위치시킬 때 이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의 엄마로 자신을 설명하여 자신이 자녀를 잘 길러낸 좋은 엄마임을 보여주려 한다.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아들이 되게 밝잖아요. 홀어머니 밑에서 큰 아이 같지 않잖아요(사례13).

이들은 자녀의 밝은 성격이나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하는 것, '엄마를 잘 도와주는' 성격 등을 강조한다. 사례13의 '한부모 자녀 같지 않다'는 표현은 미혼모의 모성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본인도 수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미혼모도 정상가족의 부모와 같이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때 미혼모들이 강조하는 좋은 양육자, 좋은 엄마는 자녀교육에 집중하는 중산층 모성 이데올로기와 차이가 있다. 이들에게 좋은 엄마란 자녀가 좋은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도록 지원하기보다

미혼모 자녀로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존재이다.

이와 같이 미혼모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다양한 가족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정상가족 규범에 변화와 균열을 추동하고 있다(김혜영, 2013). 특히 미혼모들은 자신을 자녀 양육에 힘쓰는 좋은 양육자로 설정하여 가족전시(displaying families)를 수행함으로써 미혼모의 모성이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약화시키고자 한다(Finch, 2007).

6) 나는 다르지 않은 사람

미혼모들은 자신의 가족을 다양한 가족으로, 자신을 좋은 양육자로 위치시킴으로써 일탈적 존재가 아님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미혼모의 태도가 달라진다. 예컨대, 미혼모들은 자신이 미혼모임을 드러낼 수 있으며, 미혼모의 틀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맞추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미혼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서류상에 저랑 ○○이(자녀)밖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미혼모라는 게 당연히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사례2).

옛날 같으면 '저 미혼모예요'라고 말 못하고 '사별했어요'라고 했어요. 지금은 자신 있게 미혼모라고 얘기하지만... (사례5).

이들이 미혼모임을 밝히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미혼모임을 밝히는 것은 사회의 낙인에 대해 완전히 자유롭다거나 미혼모 가족이 다른 유형의 가족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미혼모임을 밝히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의 무의식적인 실수나 비난을 방지하려는 의도

를 포함한다(고프만, 2009). 이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미혼모와 그의 자녀들이 일탈적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미혼모가 타인들에게 기대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에도 나타난다. 낙인집단의 구성원이 자신의 존재를 밝혔을 때, 정상인은 낙인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훼손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프만, 2009). 반면 미혼모들은 정상인이 미혼모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다르다면, 아무리 그것이 배려일지라도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자녀의)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혹시 엄마 아빠 사랑해요인데, 좀 그럴 것 같아서 여기(아빠) 오려내고 해 주신건가요?' 했더니 그랬대요. (선생님께) '마음 써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자녀)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동일하게 교육받길 원해요. 그래서 동일하게 해주시고, ○○가 우리 집이랑 다르구나. 그거는 제가 교육하도록 할게요'(사례8).

사례8은 어버이날 자녀가 가지고 온 카네이션 꽃잎이 비대칭이고 한 개의 꽃잎에 '엄마 사랑해요'만 있는 것을 보고 자녀의 교사에게 '아빠 사랑해요'라고 써진 꽃잎을 제거한 후 자녀에게 주었는지를 물었다. 자녀의 교사는 사례8의 자녀에게 아빠가 없음을 배려하여 행동하였지만, 사례8은 이러한 태도는 차별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미혼모들은 자신들이 정상인과 다름을 인지하게 하는 모든 기표를 없애고자 하는데, 이러한 기표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낙인집단의 낙인을 도드라지게 만들기 때문이다(고프만, 2009).

더 나아가 미혼모들은 미혼모의 틀에 맞추어 살리는 압력을 거부하기도 한다. 낙인은 단순히 사회의 정상인과 소수자 간 차이의 문제일 뿐 아니라

낙인집단이 실천할 것이라고 혹은 실천해야만 한다고 여기는 행동규범과도 관련이 있다(고프만, 2009). 가령 수급자인 미혼모들은 복지수혜자로서 저소비를 요구받는다(박홍근·허준기, 2016; Jarret, 1996). 이와 더불어 미혼모 가정의 자녀들은 양부모 가족의 자녀들에 비해 활기차지 못하고, 주눅 들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하정옥, 2010).

저 같은 경우는 꾸미고 사람답게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애 아빠가 없으므로서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사례16).

전 얼마 전에 상담을 받았는데, 우리 얘기도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애기가 한부모 가정 같지 않아요.' 이러는 데 저는 그게 기분 나빴어요. 표현은 본인이 칭찬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얘기죠 '왜 우리는 구질구질해야 되나?'(사례15).

이제 미혼모들은 자신과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행동규범을 벗어나고자 한다. 이는 낙인을 회피하고자 자신을 감추었던 행동과는 다르다. 이는 미혼모와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행동규범이 미혼모와 그의 자녀는 일탈적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간파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신을 일탈적 존재로 만드는 정상가족 규범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 즉, 타인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재구성한다(Lamont, 2018). 즉, 미혼모의 자기 인식의 변화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

5. 결론

이 연구는 미혼모가 정상가족 규범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통해 미혼모들은 자신의 낙인을 수용하여 자신의 모성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미혼모들 역시 사회에서 정상가족 규범을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타인들과 비슷한 관점에서 자신을 일탈자로 여김을 보여준다.

하지만 미혼모들은 자신들의 선택이나 기대, 행동이 미혼모를 향한 사회의 규범적 기대와는 다르며, 여러 상황을 통해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새로운 지식을 구성한다. 이에 미혼모들은 자신의 가족을 결핍가족으로 만드는 정상가족 규범을 부정하고 자신의 가족을 다양한 가족으로 설명함으로써 가족의 의미를 재개념화한다. 또한 미혼모들은 자신을 좋은 양육자로 위치시키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행동규범 등 미혼모에 대한 기표를 제거하여 자신을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위치시키고자 한다.

소수자들의 낙인에 대한 대응은 낙인집단이 낙인을 생성하는 사회의 정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혼모의 비낙인화 전략은 정상가족을 사회의 유일한 가족형태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양한 가족'으로의 재규범화를 통해 자신들과 주류집단 간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HIV보유집단이나 비만인들의 비낙인화 과정은 이와 다르다. 이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편견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학적 근거를 들어 대중들에게 전달한다(Clair et al., 2016). HIV보유자나 비만인들에게 부여된 낙인은 단순히 정상성의 어긋남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질병 혹은 신체와 관련한 편견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비낙인화의 다양성은 소수자에 대한 낙인의 기제와 편견이 다양한 만큼, 각 집단의 비낙인화

전략도 다양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혼모는 자신을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제인 정상가족 규범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비낙인화 전략을 취함으로써 미혼모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약화를 꾀한다.

한편 미혼모들이 주체적 존재로서 낙인에 대응하는 것은 미혼모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능하다.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라는 가치관의 부각, 입양중심에서 양육중심으로의 미혼모 정책의 변화, 한국 사회에서 가족유형의 변화와 다양성 인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는 점 등이 미혼모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 변화의 예라 할 수 있다. 개인적 수준에서 미혼모들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가족인식에 대한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면접에 참여한 미혼모들 중의 일부는 비혼을 지향하거나 평범한 연애관계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다는 점, 결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자녀출산과 양육에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은 미혼모들이 이미 변화된 사회의 인식을 내면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혼모들이 차별과 배제 경험을 할 때 출산과 양육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자신의 태도와 자신을 일탈자로 보는 타인의 인식 간의 괴리를 깨닫고 이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미혼모를 일탈적 존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공고한 관계로 이들이 자신의 출산과 양육을 정당하다고 여기더라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를 드러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미혼모들은 낙인에 대한 수용과 불편한 감정 한쪽에만 치우쳐 있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혹은 상호작용하는 상대에 따라 미혼모의 낙인수용이나 저항은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외적요인으로서의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 미혼모의 개인적인 경험들, 미혼모 조직에서의 활동이나 다른 문화권의 경험은 미혼모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며, 미혼모와 그의 자녀들 역시 여느 가족과 다

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미혼모들에게는 자신이 낙인자의 역할을 지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험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와 같이 미혼모들이 정상가족 규범에 균열을 추동하는 인식과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사회에서 결혼, 출산,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급격하게 변화해 왔음에도 결혼 제도 밖에서의 미혼임신과 출산은 여전히 일탈적인 사건으로 지탄받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혼모들은 낙인을 수용하고 배척받는 소수자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자 한다. 서구사회에서 소수집단들의 의식화 과정 이후 본격적으로 전사회적 비낙인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본다면(Lamont, 2018), 한국사회에서 낙인 대상자로서의 미혼모가 다양한 가족의 일부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의 가치관을 바꾸어갈 수 있는 주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미혼모들은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의 인식에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존재로 부각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혼모의 비낙인화 전략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비낙인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혈연과 결혼이 가족형성의 정당성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성정현·김희주, 2016). 현대 한국사회에서 부모와 그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정상가족 규범은 여전히 공고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미혼모들이 자기 자신을 좋은 양육자, 다양한 가족으로 위치짓고 있으나 양부모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지원과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미혼모와 그 가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혼모들이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서 경험하는 어려

음은 개인 미혼모와 그 자녀의 노력부족 혹은 열정부족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 담론에 포섭되어 있는 가족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무자녀 부부가족 등으로 가족 구성원의 변이만 있을 뿐 자녀 교육투자와 집중적 모성 등 중산층 이데올로기인 자녀의 생애 기획이라는 규범이 해체된 것은 아니다. '다양화'라는 용어는 비차별적이거나 다원적 의미의 다양성, 즉, 수평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은 가족 형태의 변이는 가시화하되 정상가족 구조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가족 구성원 간 차별적 역할규범을 비가시화한다(문소정, 2008). 즉, 현재와 같이 정상가족 규범이 공고한 상황에서 미혼모들이 다양한 가족으로 자신을 위치시킨다 해도 이들은 여전히 자녀양육과 교육이라는 가족 기능 수행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주변화된 가족들' 중의 하나로 머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낙인화와 비낙인화는 특정 집단을 사회의 일탈적 존재로 보느냐 혹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느냐에 관한 사회적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혼모들의 자기 비낙인화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하였다. 추후에는 미혼모의 낙인 대응이 거시적 관점의 비낙인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면접에 참여한 미혼모들이 자신의 가족을 다양한 가족으로 위치짓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자녀교육 기획에 적극적인 모성규범과 같이 모든 가족에게 요구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부족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에 포섭되는 가족구조가 다양해졌을 뿐 가족 내 역할규범, 특히 집중적 모성이라는 규범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미혼모의 대응이 어떠한지에 대해 추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프만, 어빙(2009), 『스티그마: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 윤선길·정기현 옮김,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Goffman, A.(1968),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Middlesex: Penguin Books.
- 권희정(2014), “‘미혼모성’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의 탈모성화 역사”, 『구술사연구』, 제5권 2호, 37-80쪽.
- _____(2015), “입양실천에서 나타나는 정상가족 담론과 미혼모 자녀의 ‘고아’ 만들기”, 『페미니즘연구』, 제15권 1호, 51-98쪽.
- 클레이저, 바니·스트로스, 안셀름(2011), 『근거이론의 발견: 질적 연구 전략』, 이병식·박상욱·김사훈 옮김, 서울: 학지사, Glaser, B. and A. Strauss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Publishing.
- 클레이저, 바니(2014), 『근거이론 분석의 기초: 클레이저의 방법』, 김인숙·장혜경 옮김, 서울: 학지사, Glaser, B.(1992), *Basic of Grounded Theory Analysis: Emergence vs. Forcing*, Mill Valley, CA : Sociology Press.
- 김순남(2017), “‘한국인’ 정체성, 사회적 소속감: 이주여성과 자녀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10권 1호, 153-189쪽.
- 김혜영(201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차별의 기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6권 1호, 7-41쪽.
- 김희주·권종희·최형숙(2012), “양육미혼모들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통권36호, 121-155쪽.
- 김희주(2015), “미혼모의 의료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통권36호, 181-214쪽.
- 문소정(2008), “한국가족 다양화담론의 다양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아시아여성연구』, 제47권 2호, 73-107쪽.
- 박동진 외(2017), “베이비박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양육미혼모의 출산과

- 양육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4호, 323-372쪽.
- 박홍근·허준기(2016), “‘장애인 수급자다움’이라는 아비투스 형성에 관한 연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외여행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1호, 1-60쪽.
- 성정현·김지혜·신옥주(2015), “미혼모의 임신출산위기 경험과 위기해소를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7권 2호, 277-309쪽.
- 성정현·김희주(2016), “미혼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관한 소고”, 『가족과 문화』, 제28권 1호, 33-58쪽.
- 손승영(2017), “양육미혼모의 당사자조직 참여 경험과 인식변화”, 『여성학연구』, 제27권 1호, 35-66쪽.
- 송관재·이재창·홍영오(2001),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인 및 윤락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7권 1호, 119-136쪽.
- 신유리·김경미·김동기·유동철(2012), “1950, 60년대생 장애여성의 생애사 연구: 사회적 배제 경험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제15집, 89-118쪽.
- 신필식(2017), “197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한국 미혼모 보호사업과 미혼모의 사회적 재현 변화 연구: 경계적 모성에서 배제된 여성으로”,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323-357쪽.
- 안순태·이하나(201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낙인 극복: 소셜미디어를 통한 관계적 커뮤니케이션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61권 5호, 311-338쪽.
- 이미정(2011), “미혼모의 자녀양육 의지와 현황”, 『이화젠더법학』, 제2권 2호, 79-107쪽.
- 이미정·정지연·구미영 외(2018),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지원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수연·김인순·김현정·김민정(2017), 『양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을 위한 세대별 가치관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윤정·강성례(2017), “양육미혼모의 모성획득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한

- 국영유아보육학』, 통권105호, 157-181쪽.
- 이은주·최규련(2014), “시설미혼모의 양육/입양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지
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5권 2호, 247-260쪽.
- 이정인·이인수(2016), “양육미혼모의 가족경험에 관한 연구: 20~30대 여성
을 대상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제24권 2호, 269-296쪽.
- 이현주(2011), “원가족이 경험한 양육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31권 3호, 143-175쪽.
- 이현주·엄명용(2013), “미혼 양육모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 종단 연구”, 『한
국가족사회복지학』, 제40권, 157-187쪽.
- 임해영·이혁구(2014), “양육 결정 미혼모의 초기 모성 경험에 관한 연구: 해
석학적 근거이론 방법”, 『사회복지연구』, 제45권 3호, 1-35쪽.
- 차마즈, 캐시(2013), 『근거이론의 구성: 질적 분석의 실전 지침』, 박현선·이
상균·이채원 옮김, 서울: 학지사, Charmaz, K.(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London: Sage Publications.
- 하정옥(2010), “한부모 자녀의 일상생활적응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
아존중감”, 『사회복지지원학회지』, 제5권 1호, 55-80쪽.
- Clair, M., C. Daniel, and M. Lamont(2016), “Destigmatization and Health:
Cultural Construction and the Long-Term Reduction of Stigma”,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65, pp. 223-232.
- Finch, J.(2007), “Displaying Families”, *Sociology*, 41, pp. 65-81.
- Frederick, A.(2015), “Between Stigma and Mother-Blame: Blind Mothers’
Experiences in USA Hospital Postnatal Care”,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37(8), pp. 1127-1141.
- Hyde, A.(2000), “Age and Partnership as Public Symbols: Stigma and
Non-Marital Motherhood in an Irish Context”,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7, pp. 71-89.
- Jarrett, R.(1996), “Welfare Stigma Among Low-income, African American

- Single Mothers”, *Family Relation*, 45(4), pp. 368-374.
- Lamont, M., G. M. Silva, and J. Welburn et al.(2016), *Getting Respect: Responding to Stigma an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Brazil, and Isra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18), “Addressing Recognition Gaps: Destigmatization and the Reduction of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3(3), pp. 419-444.
- Link, B. G. and J. C. Phelan(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pp. 363-385.
- May, H.(2000), “Murderers’ Relatives: Managing Stigma, Negotiating Identity”,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29(2), pp. 198-221.
- Richard-Lepouriel, H., S. Favre, and F. Jermann et al.(2020), “Self-Destigmatization Process? Experiences of Persons Living with Bipolar Disorder: A Qualitative Study”,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56, pp. 1160-1169.
- Thornberg, R.(2015), “School Bullying as a Collective Action: Stigma Processes and Identity Struggling”, *Children & Society*, 29(4), pp. 310-320.
- Toyoki, S. and A. D. Brown(2014), “Stigma, Identity and Power: Managing Stigmatized Identities through Discourse”, *Human Relations*, 67(6), pp. 715-737.

〈Abstract〉

Positioning the Single Mother as a Good Mother:

A Study on a Response to the Stigma of Single Mother Parenting

Jeoung, Jiyoun* · Lee, Mijeoung**

This study examines how unwed single mothers respond to social stigmas by analyzing their perceptions of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Unwed single mothers who perceive themselves as providing abnormal motherhood find that their attitudes and behaviors diverge from social expectations. Various positive experiences enable them to regard themselves as being equal to normal people, despit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Consequently, they tend to reject conventional family norms which stigmatize single motherhood. Instead, they perceive their families as diverse and position themselves as good caregivers, demonstrating that unwed single mothers who considered to be a minority that can respond independently to social stigmas. This self-destigmatization implies the possibility of social destigmatization on a macro level. However, it also suggests a possibility that the families of single mothers might remain marginalized due to the established norms of conventional families.

Key Words: single mothers, motherhood, stigma theory, destigmatization, family norms

* Lead author, Instructor,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Korea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